

202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록

1. 일시: 2025. 1. 15.(수) 10:00~11:00

2. 장소: 대학본부 2층 교무회의실

3. 참석위원

- 위원장: 최성찬(부총장)
- 위원(학교대표): 홍석민(D-1처장)
- 위원(학생대표): 김동규(총학생회장), 이승주(총학생회 복지국장)
- 위원(직원대표): 이덕신(해부신경생물학교실)
- 간사: 박용준(예산팀 팀장), 권기범(예산팀 직원)
- 불참: 우연정(총학생부회장), 조지현(교수대표), 김성희(한국투자증권), 황규선(강원연구원)

4. 회의 안건 및 주요내용


가. 회의 안건

- 2025 등록금 책정(안) 관련 학생 의견

나. 주요내용

- 2025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1차 회의에서 진행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함. 지난 회의에서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 전체가 공감하였으며, 1차 회의 이후 학생대표와 예산팀 간의 논의가 있었고 이를 통해 오늘 2차 회의가 열리게 되었음을 알림. 이번 회의에서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볼 것이며, 이에 대해 학교 측에서 바로 확답을 주기는 어렵지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답변하겠다고 설명함.
- 학생대표가 1차 회의 이후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한 과정을 설명함. 단과대학 회장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진행하였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반반 정도로 의견이 혼재되어 있었다고 설명함. 등록금 인상을 강하게 반대하는 단과대학은 3개 정도가 있었고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가장 큰 반대 요인으로 제시했음. 나머지 단과대학에서는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학생복지 혜택 등 등록금 인상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점들을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 또한 본교가 글로벌대학에 선정되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한도치까지 등록금 인상을 진행하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음. 학생대표는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2025학년도 1학기는 등록금을 동결하고 2학기부터 점진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학교 측에서 제시한 등록금 인상률(학부 기준 5.485%)을 낮추자는 요구안을 제시함. 또한 등록금 인상 시 교육 및 학생복지 향상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며 전공강의 확대, 도서관 5층 개방, 교내장학금 확대, 낙후시설 보수, 캠퍼스 내 도로 개선, 냉난방 가동 확대 등을 요청함. 마지막으로 학생대표가 2차 회의 전날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인상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설명하였고, 현재까지 600명 가량이 응답하였으며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90% 이상이었다고 밝힘.

[간서명란]

김동규		이덕신
-----	---	-----

- 위원장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한 학생대표에게 감사를 표하며 현재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언급함.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상이 갑작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학교 측에서는 장기간 등록금 동결이 지속되면서 오랫동안 많은 고민을 해왔던 문제임을 설명함. 학생대표가 제시한 요구안을 정리하자면 등록금 인상을 한 학기 연기하거나, 등록금 인상률을 조정하거나, 구체적인 학생복지 향상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함.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주기는 어렵고, 학생 측 요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답변하겠다고 설명함. 학생들이 요구한 시설 보수, 냉난방 가동 확대, 장학금 추가 지원 등은 결국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알림. 1차 회의를 통해 학교 측에서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하였고 이번 2차 회의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었으니, 충분한 검토와 대화를 진행한 후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 학교대표가 1차 회의에서 전반적인 학교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했던 부분을 언급하며, 그동안 학교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대한 학생복지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해왔다고 설명함. 학생 측 의견 중에 글로벌대학 선정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글로벌대학은 사업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학금 등 학생복지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제한적이라고 언급함. 대학혁신지원사업이나 지방대학활성화사업의 경우 조금 더 학생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었고 실제로 교육환경개선에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고 설명함. 이러한 재정지원사업들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 교직원들의 노력이 매우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로 인해 인건비 등 교직원들에 대한 추가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함.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물론 학생들의 부담도 크겠지만, 그동안 장학금 규모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왔고 등록금 인상 시에도 교내장학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알림. 학생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하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계속해서 교직원들의 희생만 강요하기는 어려우니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좋은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함.
- 위원장이 학생대표가 전달한 학생들의 의견 중 일부에 대해 설명을 추가함. 먼저 현재 등록금도 비싸다는 의견에 대해, 국립대와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있지만 같은 사립대끼리 비교했을 때는 1차 회의에서도 설명했듯이 등록금 순위가 높지 않다고 알림. 이번에 국립대에서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증가하는 비용은 세금으로 해결한다는 뜻이므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며 사립대가 처해있는 상황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함. 다음으로 글로벌대학 선정에 대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앞서 학교대표가 설명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업비를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많다는 점을 밝힘. 과거 재정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을 집행할 수 없었지만, 여러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해서 일부 프로그램 성격과 맞는 예산에 한해 부분적으로 경상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설명함. 이렇게 재정지원사업비를 통해 현재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글로벌대학처럼 단기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를 근거로 대학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논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함.

[간서명란]

김동국		이정신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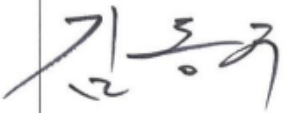


- 학생대표가 앞서 학교대표와 위원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 언급하며, 그동안 충분한 설명을 통해 본교의 현 상황과 글로벌대학 선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밝힘. 그러나 학생대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현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함.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등록금 인상 관련 설문조사를 금요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가 있기 전까지 들어오는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정리해서 전달하겠다고 알림.
- 위원장이 등록금 조정과 같은 중대한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전까지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한 후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과 협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하는 것을 권장함.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학교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계속해서 구성원의 의견들을 정리하고 소통하면서 가급적 다음 주에 회의를 개최해서 합의 결정하자고 제안함. 이에 대해 각 위원들이 동의하며 본 회의를 종료함.

붙임 2025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간서명란]

김동욱		이정신
-----	--	-----

202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서명부(2차)

구분	직위	소속	성명	서명
학교대표	위원장	부총장	최성찬	
	위원	D-1처장	홍석민	
학생대표	"	2025 총학생회 회장	김동규	
	"	2025 총학생회 부회장	우연정	
	"	2025 총학생회 복지국장	이승주	
교수대표	"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지현	
직원대표	"	의과대학 해부신경생물학교실	이덕신	
전문위원	"	한국투자증권 춘천지점	김성희	
	"	강원연구원 규제·공공팀	황규선	